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보고자: 김기홍 책임연구원

## 1. 국외여행 개요

### ○ 여행목적:

－ 본 출장은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이케모토 교수가 진행 중인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보조금 기반연구(C) ‘소셜 비즈니스를 통한 빈곤삭감과 사회적포섭’(2016년도~2018년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일본 농촌개발 실태조사’에 전문가로서 요청받아 일본 내 청년농업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 내 연구자들과 태국 전문가도 함께 참석하여 전문가적 견지를 나누고자 함.

－ 현재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 정책은 국내에서도 국정과제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있어 일본의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의 포도 농가 그룹 사례는 지난해 교토부에서 이루어졌던 청년 귀농 지원 사례(2016년 10월 24일~28일)와 더불어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귀중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짐.

－ 본 출장은 국내 농정의 주요 이슈가 되는 정책 현안이라는 연구적인 측면과 현장 학습적 측면, 경비 절감적 측면, 일본과 태국 연구자와 네트워크 확장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함.

### ○ 여행기간: 2017년 9월 9일~17일

(당초: 9월 11일~19일, 변경 사유: 해외공무 출장 기간은 5일간이라는 규정 하에 조정하게 되었음)

### ○ 여행자: 김기홍 책임연구원

### ○ 여행국: 일본 동경, 오카야마

## 2. 주요 일정

월/일	시 간	내 용	
9월 9일 (토)	18:45~21:05	이동: 김포 → 하네다공항(대한항공 KE2711)	출국
9월 10일 (일)	-	휴일	동경 숙박
9월 11일 (월)	14:00~18:00	동경 쌀 관련 소매업체 방문(긴지역)	동경 숙박
9월 12일 (화)	13:00~18:00	소셜 비즈니스를 통한 빈곤식감과 사회적포섭 세미나 (동경대학)	동경 숙박
9월 13일 (수)	10:00~17:00	일본 농촌개발 실태조사 사전 지문 회의 - 일본 키비국제대학 지역창성농학부 준교수 하마시 마 아츠히로 - 태국 Ransit University 경제학부 전임강사 나리사 라 차로엔판두 - 한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흥	동경 숙박
9월 14일 (목)	08:10~11:30 11:30~15:00 15:00~18:00	이동: 동경역 → 오카야마역(신칸센) 렌트카 이동(오카야마역~다카하시시)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 포도 농가 조사 1일차 - 청년귀농인 면담	오카야마 숙박
9월 15일 (금)	10:00~18:00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 포도 농가 조사 2일차 - 지자체 지원 관련 면담 - 포도 수확 체험 행사	오카야마 숙박
9월 16일 (토)	09:00~11:00 11:30~15:00 15:10~18:30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 포도 농가 조사 3일차 - 포도 수확 체험 행사 렌트카 이동(다카하시시~오카야마역) 이동: 다카하시시역 → 동경역(신칸센)	동경 숙박
9월 17일 (일)	11:50~12:20	이동: 하네다 → 김포공항(대한항공 KE2708)	귀국

## 3. 출장 주요 내용

### 1) 동경대학 세미나 및 일본 농촌 실태 조사 사전 회의(위치: 동경대학)

○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이케모토 교수가 진행 중인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

보조금 기반연구(C) ‘소셜 비즈니스를 통한 빈곤삭감과 사회적포섭’(2016년도~2018년도) 과 관련한 세미나 참석

○ 기반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일본 농촌개발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 회의에서는 일본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청년 신규취농자의 역할과 이를 위한 일본 정부 정책 지원 상황에 대해 논의함. 또 태국에서는 북부지역의 소수민족들의 커피 재배 현황과 이를 돕고자 하는 태국 정부의 로열프로젝트 활동 및 일본 커피헌터에 의한 사회적 기업 형태의 판매망 확대에 대한 활동 상황이 소개됨. 이렇게 생산된 커피는 현재 동경대학 UT 샵에서 5개 봉지 500엔에 팔리고 있으며 이 수익금은 태국 북부지역 소수민족 활동 지원비로 쓰이고 있음

## 2) 코아니 포도농장 (위치: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

○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 우지초에 위치한 코아니 포도농장은 이토 아키라(39세)와 스즈키 요이치(39세)가 귀농하여 만든 농장으로 이들은 2010년에 동경 근처인 가나가와현에서 오카야마현으로 이주해 왔음

○ 당시 포도 재배를 염두에 두고 귀농을 고려하던 중 오카야마현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월 150만 엔 지원제도에 매력을 느껴 무작정 오게 되었으며 2년간의 지역 내 선진농가 연수를 받고 지역의 농업위원회의 승인으로 마을 산 어귀에 1ha의 땅을 얻어 창농하게 됨. 피오네와 샤인마스카트를 재배하고 있음

○ 2012년이 되면서 귀농한 지역인 우지초가 사람농지플랜을 작성하여 신청한 지역이어서 그 혜택으로 청년취농금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지역의 중심적 경영체로 인정받아 올해까지 5년간 월 150만 엔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농사를 짓게 됨



<키비국제대학 학생들과 농장 수확 체험>

### 3) 청년취농금부금 제도

○ 일본에서는 만 45세 미만의 젊은 신규취농자는 연간 150만 엔을 최장 7년간 받을 수 있음. 경영준비형(최장 2년), 경영개시형(최장 5년)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개시형의 경우, 시정촌 단위에서 마련되는 ‘사람농지플랜’을 통해 ‘중심적 경영체’로 인정받아야만 함

○ 이 제도는 고령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청년의 신규취농자 및 영농승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본에서는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 실시 요강’을 발표(제정 2012년 4월 6일, 최종개정 2016년 5월 9일)하여 취농전후의 청년취농자에 대한 금부금의 지급, 농업법인 등 청년취농자의 고용에 대해 실질적인 연수 조성, 고도의 경영력 및 지역리더로서 인간성을 양성하는 농업자경영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취농에 관한 상담체제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 관련 정책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사람농지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신규취농문제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사람농지문제해결가속화지원사업실시요강(2012년 2월)에 의한 사람농지플랜, 지역농업경영재개채권지원사업실시요강(2011년 11월)에 의한 경영재개마스터플랜(이하, 사람농지플랜)의 작성 및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과 농지집적·집약화대책사업실시요강(2014년2월)에 의해 지역에서 실시되는 농지집적 실천과 연계하여 추진 중임

### 4) 사람농지플랜

○ 2012년, 강한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락과 지역이 철저히 논의를 통해 지역농업의 본연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농업을 담당할 경영체 및 생산기반이 되는 농지를 확보해 가기 위한 전망을 마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사람농지플랜’이 시작됨

○ 사람농지플랜을 통해 시정촌, 도도부현은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개인, 법인, 집락영농) 확보와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의 농지집적에 필요한 실천을 지역 스스로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및 체질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 관련 사업으로는 사람농지문제해결가속화지원사업(제정 2012년 2월 8일, 개정 2017년 3월 30일)이 있음. 사업 내용으로는 우선 사람농지플랜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집락과 지역이 안고 있는 사람과 농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집락과 지역에서 논의함으로써 시정촌 단위에서 ‘향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개인, 법인, 집락영농)는 누구인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람농지플랜 작성 및 갱신에 대해 지원하

고 있음. 둘째로 ‘지역연대추진원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사람농지플랜의 작성과 갱신, 실행에 있어 지역내 합의 형성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정촌 단계의 지역농업지원조직의 연대, 역할분담을 전제로, 지역연대추진원의 설치 및 파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5) 아코메야 도쿄(전국 쌀을 한자리에 모은 쌀 소매업체)

○ 전국 쌀을 한자리에 모아 일본의 쌀 문화를 촉진해가고자 설립된 아코메야 도쿄는 1972년에 창업한 사자비 그룹에서 2010년 8월에 만든 소매업체임. 전국의 쌀 가운데 원하는 지역의 브랜드를 필요한 만큼 진공상태로 소포장해 판매하고 있어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쌀 뿐만 아니라 술과 그릇 등 쌀과 관련한 여러 제품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쌀밥을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도 함께 오픈하여 일본의 새로운 쌀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음



<전국 쌀을 필요한 만큼 소포장해 판매하는 아코메야 도쿄 긴자점>

#### 6) 미치노에키(로컬푸드 직매장)

○ 미치노에키는 국내에서는 일본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유명하며 현재 전국에 1,117개소 설치되어 있음.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연계하여 설치한 것으로 주로 국도변에 설치됨. 1990년,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름.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각자의 이름을 붙이고 적당한 가격 설정으로 판매하여 지역 소농을 위한 판매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큼. 여기에 농산물 판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설과 레스토랑, 매점, 화장실, 지역에 따라서는 발온천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로 지역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음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시에 위치한 미치노에키>